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걷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박 경 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출퇴근 시간이면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차량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량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모든 골목길은 주차된 차량으로 점령당한다.

자가용이 없으면 생활하기 불편한 도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통행수단인 보행이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하는 도시, 과연 이런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일까?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고 있는 도시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영국의 컨설팅 업체인 머서(Mercer)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발표하고 있다. 2011년도에 이어 2013~2014년도 연속 1위로 차지한 호주 멜버른은 2030년까지 전체 이동수단의 30%를 보행자 통행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 살기 좋은 도시의 상위권을 차지한 캐나다의 밴쿠버와 토론토,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 등 대부분의 도시들도 보행이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우선으로 하는 도시 및 교통계획을 펼치고 있다.

물론 보행환경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를 평가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될 것이다. 하지만 보행자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도시가 과연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현대문명의 획기적 산물인 자동차는 도시화와 산업화 시대에 안성맞춤인 빠른 이동수단이기에 선진 산업국가들은 앞 다투어 보급해왔고, 도시의 모습과 사람들의 생활양식도 이에 맞추어 빠르게 변화되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에 따른 난개발과 도시 내 도시 간 교통량의 급증, 기성 시가지의 쇠퇴, 지역 커뮤니티의 파괴, 그리고 신체활동 감소에 따른 비만인구의 증가 등 자동차 중심의 도시로 인해 발생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문제인식이 확산되면서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흐름이 많은 도시에서 시작되고 있다.

아직까지 성공이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해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 보행수단 분담률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 은 매우 중요한 시도라 생각된다.

특히 기존의 많은 도시에서 단순히 차량을 막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공간 조성에 치중했던 '보행전용거리'와는 달리 주변 상권과 보행자 이동패턴, 교통량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구단위의 종합적인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친화구역' 조성사업에 많은 기대가 된다.

이처럼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행로 중심의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토지이용, 교통, 건축, 보건, 공원녹지 등 모든 도시행정에서 보행환경과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도 보행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자전거 통행자를 위해서 기존 보행로를 자전거 겸용구간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차도를 줄여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보행을 우선시 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자가용을 버리고 많이 걸을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이를 위해서 보행 중심의 활동적인 삶(Active Living)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쇠퇴한 구 도심권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사업도 반드시 보행이 중심이 되면서 자전거나 대중교통이 서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동차보다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걷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이자, 건강한 도시라는 지역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불만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현 세대가 선택해야 할 바른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의료칼럼

공공산후조리원 타당한가?

최 진 수
전남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미국 적십자사에서 익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영강습을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익사사고는 더 늘어났다. 알고 보니 익사는 수영 미숙보다는 음주가 더 큰 원인이었다. 수영을 새로 배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수영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것이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하지만 실제로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 9월 24일 전남도의회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인구 감소를 막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든다는 것이다. 정말 그 말이 맞을까?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 출산율이 낮고 양육에 지장이 있을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나 산후조리원이 출산율과 관련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발전은 세계에서 거의 유례없는 일이다. 그러나 사회문화 수준은 경제발전을 따라 가지 못하는 것 같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것 같은 현상이 자주 눈에 띈다. 고급차, 명품, 골프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 분야에서도 합리적인 건강관리나 건강사회를 위한 노력보다 과시나 개인 보신 위주의 불필요한 낭비가 심하다. 성형수술 세계 1위, 갑상선암 세계 1위가 그 예이다. 의료봉사나 병원선 같이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를 답습하는 경우도 있다.

산후조리원도 그런 현상의 하나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애 낳고 찬바람 쐬면 뼈에 바람 든다'는 굳은 믿음이 있다. 최근엔 출산이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국가적 경사로 여겨져 산모가 VIP로서 휴가를 갖는 것은 당연시된다. 거의 모든 산부인과병원에 산후조리원이 따라붙어 '영업'을 한다. 하지만 사회풍조가 그렇다고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없는 이런 사치성 '건강관리'행위에 공공 자원을 투입해야 할까?

의학적으론 분만 후 일상 업무에 빨리 복귀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 산후조리원 입원서비스가 의학적 근거가 있다면 건강보험으로 하거나 분만 후 요양기간을 늘리면 된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은 복지가 건강과 무관하다는 말로 인기영합적인 발상이다. 서울 어느 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지만 그 부자동네는 보건소에도 CT 같은 첨단장비가 있을 정도로 돈이 넘치는 곳이다. 오히려 공공보건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 본받을 일은 아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도 그 효과는 미지수다.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통계(거주별, 사회경제 수준별, 출산장소별 이용자 수나 이용률)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충분히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 최소한 사전 모의조사라도 해야 한다. 또 공공시설을 신설하는 것과 그냥 조리비용만을 지원하는 것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오히려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을 강화해 활용하는 것이 정말 산후관리가 꼭 필요한 소외계층을 돕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다. 의료분야에서도 수익이 있다면 민간에서 스스로 만들어 내는 시장논리가 확실히 지배한다. 이런 환경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광주·전남지역에 난립해 있는 민간요양병원에 비해 일부 시군에서 운영하며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공공요양병원들이 모두 엄청난 적자를 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매년 예상외의 비용보전이 필요할 수 있다. 관리나 지휘감독을 위해 또 하나의 불필요한 행정 수요도 생겨난다.

인구가 줄고 출산율이 낮은 데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다. 지역의 생산력이 낮으면 아무리 출산율이 높아도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역의 인력 공급기지로 남게 된다. 어떻게 먹고 살 거리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지방 행정 책임자의 으뜸 과제이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활동 제약을 없애고 과열된 자녀교육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출산 후 며칠 입원·요양하는 것이 내세울 만 한 타당한 인구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구체적 근거 없이 막연한 기대에 영합하는 행정은 삼가야 한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수록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푸라기다.

기 고

2014년 '추억의 7080 충장축제'의 성공 이유

류 재 한
아시아문화학회장·전남대 교수

최근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들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성과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수단인 축제가 축제 소비자의 인식 속에서 차별화된 영역을 차지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축제들이 자신의 브랜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축제 방문객이 축제의 브랜드를 사랑하는 이유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데에서 이러한 평가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추억과 비상'이라는 주제로 치러진 '추억의 7080 충장축제'는 달랐다. 올해 11번째인 충장축제는 일반 관람객 외에도 전문가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어떤 전문가는 '언밸런스' 속의 '밸런스'를 갖춘 축제라고 했다. 진행 상 아간의 미흡함도 밸런스 속에 잘 녹아났다는 평가일 것이다. 이처럼 충장축제는 광주의 대표축제가 되기 위한 '비상'의 날갯짓을 힘차게 보여주었다.

그 성공의 요인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난여름 충장축제 워크숍에서 있었던 토론 내용이 생각났다. 충장축제 워크숍에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발의 운영위원장인 필자와 총감독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두 축제의 협력과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안건은 충장축제의 주 무대를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발 개막행사의 무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민감한 내용들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국장과 과장, 계장을 포함한 동구청 축제 담당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열린 마음'으로 두 축제의 연계 가능성을 찾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보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능성을 타진하기 보다는 자기 축제가 다른 축제에 묻힐까 걱정하는 것 외에도 귀찮아서라도 '노'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인데, 충장축제는 모든 가능성의 타진에 '예스'라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었다. 이처럼 가능성과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충장축제의 '열린 마음'이 올해 축제를 성공으로 이끈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성공요인은 충장축제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특히 개막행사의 뮤지컬 갈라쇼는 말 그대로 품격이 넘쳤다. 문화전당 주 무대에서 펼쳐졌던 뮤지컬 갈라쇼 개막식은 국제적인 수준의 뮤지컬 무대를 축제에 그대로 옮겨왔다는 평가이다. 뮤지컬 '맘마미아' 제작자로 유명한 스타 기획자이자 CEO인 박명성 신씨컴퍼니 대표를 총감독으로 영입하여 연출을 맡긴 결과일 것이다. 박명성 총감독의 네임밸류는 최정원, 아이비, 전수경, 박칼린, 최재림과 같은 국내 최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의 출연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갈라쇼 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통해 세계로 비상하는 광주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이다.

세 번째 성공요인은 축제 방문객 타깃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다. 다시 말해서 추억의 7080축제이지만 올해 축제는 유난히 젊은이들의 참여와 방문이 두드러졌다. 이런 점에서 누구나 즐기는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성공요인들은 광주 충장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결국 충장축제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노하우와 경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축제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이다. 특히 광주 충장축제의 매력요소와 차별성 즉 경쟁우위요인의 확보를 통해 축제성을 제고함으로써 광주 충장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 박수를 보낸다.

社 說

불안감 키우는 한빛원전 누출사고 은폐

영광 한빛원전 3호기의 증기발생기 고장으로 평소보다 130배 이상의 방사능이 원전 내 복수기에서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빛원전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모두 파악했으면서도 주민과 언론에 뒤늦게 공개해 원자력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21일 한빛원전에 따르면 3호기는 증기발생기 세관 누설이 확인된 지난 16일 오후 1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0시47분까지 11시간 넘게 방사능 1.11기가베크럴을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 방사성 준위보다 130배가 많은 양이다.

원전 측은 유출된 양이 연간 허용치의 0.05%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자동정지 이후에도 유출 현상이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유출량은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전 측은 특히 세관이 파손된 증기발생기 대신 멀쩡한 증기발생기를 수습한 엔지니어들의 실수를 확인했고, 외부 환경으로 유출된 방사능 총량도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를 은폐하려다가 뒤늦게 발표했다. 또 민간감시위원회의 요구로 17일 열린 회의에서도 원전 측은 "세관 파손 문제를 잘 대처했다"고 허위 보고해 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엉뚱한 증기발생기의 밸브를 차단해 방사능이 유출된 것도 모자라 은폐에다 허위 보고까지 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한빛원전은 잦은 고장으로 주민들의 '원전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4년간 가동 중단만 100여 차례에 달해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1984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0년 일본 후쿠지마 원전사고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원전에선 한 치의 실수나 은폐도 용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총체적 안전점검에 나서야 한다. 원전사고에 '사후약방문'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불·탈법 없도록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 하면 언제부터인가 '불법'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소수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의 특성상 돈봉투나 향응 등 불·탈법이 판치면서 사법처리된 사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내년 3월11일로 예정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이 같은 불법을 막기 위해 선관위 관리하에 실시된다. 광주에서는 농협 15곳, 축협과 산림조합 각 1곳 등 모두 17개 조합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전남에서는 농협 149곳, 수협 17곳, 산림조합 19곳 등 총 185개 조합에서 대표자를 선출한다. 선관위 관리하에 일제히 실시되는 이번 선거가 공명을 담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처음 실시되는 일제선거인 만큼 선관위와 경찰 등 사정당국이 감시의 눈을 게을리하지 않겠지만 염려의 마음을 놓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곧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이 많아지고, 선거 전 민족대명절인 설까지 겹쳐 교묘한 탈·불법 행위가 자행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일부 입지자들은 벌써부터 사전 선거운동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 온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마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당선에만 혈안이 될 게 아니라 스스로 법을 지키겠다는 소신을 가짐으로써 공명선거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유권자들도 불법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관련 기관의 노력 역시 부단히 이어져야 한다. 선관위는 이미 유권자와 후보자가 관련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와 캠페인에 돌입했다. 세심한 지도로 법을 잘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을 비롯한 사정기관 또한 일시에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위반 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함으로써 선거판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낙엽과 여인

수많은 시인들이 낙엽을 노래했다. 떨어지는 낙엽에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시인이 아닐 것이다.

정호승 시인은 "낙엽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다만 낙엽이 떨어지는 데는 "인생의 가을이 되면 누구나 퇴비가 되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선생님처럼 말한다.('선암사 낙엽들은 해우소로 간다')

이병금 시인은 장엄한 황금빛 낙엽을 보며 "저들 중에 어느 하나/ 생애에서 목마른 사랑을 이룬 자 있었을까"라며 연민의 시선을 보낸다. "몸은 땅에 떨어져 나뒹굴지라도/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노라고/ 남은 불꽃을 당기는 저들만의 / 그리움이 안타깝게 쌓여 가고 있다"라고 노래한다.('낙엽을 위한 파반느')

널리 애송되는 구르몽(1858~1915)의 '낙엽'은 가을 낙엽을 밟을 때마다 절로 떠오르는 시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후렴처럼 반복해서 연주(演奏)되는 이 시구. 젊은 날, 한 번쯤 읊조려 보지 않은 이 없으리라.

시에는 '시몬'이라는 여성에 대한 깊고 강렬한 애정이 녹아 있다. 구르몽은 그의 나이 34세 때 쓴 이 시에서 "낙엽은 날갯소리와 여자의 옷자락 소리를 낸다"고 했다.

하필이면 날개와 여자인가? 시인은 낙엽에서 혹 천사의 날갯소리와 여인의 옷 벗는 소리를 들은 것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결코 평이하지 않았던 시인의 생애를 생각하면.

구르몽은 26세 때 낭창(狼瘡)에 걸렸다. 그 흉터로 얼굴이 추해지자 '오페라의 유령'처럼 파리의 아파트에 숨어들어 평생 독신으로 지냈다.('낭창'은 결핵성 피부병의 한 가지. 궤양(潰瘍)이 퍼지는 강도가 사나운 이리가 먹어 드는 것과 같다고 하여 이리 '낭'(狼) 자와 부스럼 '창'(瘡) 자를 쓴다)

구르몽은 평생 시몬이라는 여성을 위해 많은 시를 썼다. 하지만 '시몬'은 그의 머릿속에만 들어 있는 상상 속의 여인이었다. 그의 시를 읽다 보면 저 멀리에서 여자를 바라보면서 쓸쓸함과 고독함을 토로하는 듯한 애틋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 잎 두 잎 낙엽이 쌓인다. 쓸쓸한 고독의 계절. 가을이 깊어 가고 있다.

/이홍재 논설고문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32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